11

제19756호

# 배수펌프장 속속 건립…'퐁당도시' 오명 사라진다

유독 저지대 상습 침수구역이 많아 '퐁당 도시'라는 오명이 줄곧 따라다녔던 목포시. 그동안 100mm 이상의 비만 내려도 속수무책 으로 도심 곳곳이 침수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

겪어왔다. 목포시는 민선 4, 5기 8년에 걸쳐 이 같은 '퐁당 도시'의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며 눈물겨운 '침수와 의 전쟁'을 벌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 타나고 있다.

원도심 지역을 비롯한 2·3호 광장 주변, 버 스터미널 주변, 백련지구 등이 목포시의 대표 적 상습 침수구역으로 꼽힌다.

침수 방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시설은 배수 펌프장과 우수 처리시설.

시는 정종득 시장 취임이후 기존의 남해와 해안로 배수펌프장 등 2곳에 추가로 북항, 하 당, 용당, 용해 2단지 배수 펌프장 등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새로 건설했다. 또 강우 초기 일시에 쏟아져 내리는 빗물을 저장해 침수 예방 효과를 높이는 저류조 1개소를 용당동 에 설치했고, 버스터미널 주변의 침수를 막기 위한 '상동 초기 우수 처리시설' 설치 사업도

◇빗물저장 우수 처리시설 설치=일명 '저 류조'라고 불리는 이 시설은 일시에 쏟아지는 빗물을 저장하는 일종의 커다란 탱크다.

시는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사업 (BTL) 일환으로 용당동 5국 전화국 인근에 지난 2011년 사업비 74억원을 들여 용당 우 수 저류조를 설치했다.

이 시설은 양을산 일대 고지대 66ha에서 쏟아지는 빗물을 일시로 저장하는 곳으로, 3 호 광장 주변 저지대의 침수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. 이 탱크는 길이 159m, 폭 15m, 높 이 8m 규모로 최대 1만9080 m 의 빗물을 저장 할수있다.

또 시는 버스터미널 앞 저지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상동 초기 우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.

이 시설은 부유물이 많은 초기 우수를 집수 해 남해펌프장으로 이송하는 역할도 맡고 있 다. 길이 40m, 폭 55m, 높이 5m 규모인 이 저 류조의 빗물 저장 용량은 1만㎡에 달한다. 사 업비는 156억(국비 109억·시비 47억)원이 투 입되며 지난 2010년 착공해 내년 4월 준공 예 정이다.

# 목포시, 펌프장만 6곳 가동…우수처리시설도 잇따라 설치 원도심·버스터미널·백련지구 등 '침수와의 전쟁' 성과 "내년 하반기되면 시간당 50mm 이상 비 와도 침수 없어"

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.

◇배수펌프장 6곳 가동=현재 빗물로 인한 침수를 방지하는 배수펌프장은 총 6곳. 바닷 물 침수를 막기 위한 배수관문은 북항, 하당, 남해, 해안로 등 모두 4곳이다.

북항 배수펌프장에는 670마력(HP) 2대와 570마력 4대 등 펌프 6대가 설치돼 배수능력은 분당 1632㎡에 달한다. 사업비 134억원이 투입 됐고지난 2008년 준공됐다.

배수펌프장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하당 배 수펌프장은 207억원이 투입돼 2008년부터 가 동을 시작했다. 535마력 펌프 8대가 분당 2580 m의 빗물을 처리, 최대 용량을 자랑한다.

또 166억원을 들여 건설한 용당 배수펌프 장은 430마력 펌프 6대가 분당 1632㎡를, 용 해 2단지 배수펌프장은 50마력 4대가 60㎡의 빗물을 소화한다. 각각 2012년과 2013년 준 공됐다.

특히 시는 기존 6개 배수펌프장에 이어 대단 위 택지개발과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용해 2 지구 일원의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총 사업비 250억 원(국비 50%·시비 50%)을 들여 백련 배 수펌프장 신설에 나선다

재해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공사 는 이달 중 착공해 오는 2016년 준공 예정으 로, 분당 2070 ㎡의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 설이 들어서게 된다.

이와 함께 하수구에 유입된 빗물이 원활하 게 배수될 수 있도록 상동 버스터미널 주변 대하수도 준설 공사도 병행하고 있다. 총 연 장 820m에 가로세로 각 2m의 하수관에 쌓인 부유물을 준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 마무 리된다.

이 두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 4월이면 버 스터미널 일대 침수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.

이 밖에 용해 2지구 일원에서 발생되는 우 수를 신속하게 배수시키기 위해 용해 2지 구~백련 펌프장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한 창 공사가 진행 중이다. 총 연장 1580m에 3. 5×2.2m 규모의 우수 박스를 설치하는 이 사 업은 총 1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.

상·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김문옥 단장 은 "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우량 50mm 이상의 비가 내려도 목포에 더 이상의 침수는 없다" 고 단언했다.

이어 김 단장은 "침수 예방에 만족하지 않 고 앞으로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북항 하 수종말 처리장에 고도 처리 시설을 설치해 해 수 오염 방지에도 심혈을 기우려 나가겠다" 면서 "고도처리 시설이 모두 마무리되면 방 류수 수질이 개선돼 바다 환경 오염방지에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
/목포=고규석기자 yousou@



목포

용당배수펌프장 전경.

# 목포 주요 배수펌프장 현황은

#### 북항 펌프장

- 134억 투입·2008년 <del>준공</del>
- 펌프: 670마력 2대·570마력 4대
- 배수능력:분당 1632m³

#### 하당 펌프장

- 207억 투입·2008년 준공
- 펌프: 535마력 8대
- 배수능력:분당 2580 m³

#### 용당 펌프장

- 166억 투입·2012년 준공
- 펌프: 430마력 6대
- 배수능력:분당 1632m³

#### 백련 펌프장

- 250억 투입·2016년 준공 예정
- 용해 2지구 침수 피해 방지
- 배수능력:분당 1632m³



북항 배수펌프장.



하당 배수펌프장.



신설되는 백련배수펌프장 조감도

# 대성지구 공공분양 임대 1391가구 13일 공급

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목포시 대성동 일원에 짓고 있는 공공 분 양 851가구, 공공임대 540가구 등 총 1391 가구를 오는 13일 공급한다.

대성지구는 지하 1층 지상 16~25층 11 개 동으로 구성됐다.

공공분양은 전용 84㎡ 851가구다. 나머 지 540가구(전용 39㎡, 전용 51㎡)는 공공 임대로 공급된다.

대성지구는 목포 원도심 발전의 기폭제 가 될 신주거단지로 사통팔달의 입지 여건 이 장점으로 꼽힌다.

LH의 한 관계자는 9일 "대성지구는 KTX 목포역과 가깝고(1km) 목포대교와 서해안고속도와는 3~5분 거리에 있다" 면서 "대형 할인마트는 물론 학교도 집중 분포돼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"고 자랑했

또 마을 숲, 생태연못, 잔디광장 등의 다 양한 커뮤니티 공간도 확보된다. 남향 위 주의 동배치로 대부분 가구가 통풍 및 채 광조건이 매우 우수하다고 회사측은 설명

분양가격은 입주자 부담완화를 위해 전 용 84㎡(A) 기준층 기준으로 1억7000만원 대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도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% 잔금 90%로 책정했다. 발코 니 확장도 추가 비용 없이 공급된다.

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전용 51㎡ 기준으로 보증금 약 7000만원에 월 임대료 21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된다. 입주는 2016년 2월 예정이다.

/목포=김병관기자 dss6116@

###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오늘부터 특별 점검

목포시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·점검에 나선다.

시는 8일 "9일부터 20일까지 의료폐기 물의 적정처리 유도 및 배출자의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·점검을 실시한 다"고 밝혔다.

점검대상은 관내 의원 및 병원 등 276개 소이며, 종합병원 5개소는 영산강유역환 경청에서 별도 점검한다.

주요 점검사항은 ▲ 의료폐기물 보관기 준 및 처리기준 준수 여부 ▲ 의료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여부 ▲ 의료폐기물 보관장 소 적정 여부 등이다.

위반 정도에 따라 고의성 위법행위 등 환경보전상 악영향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 분(과태료 및 조치명령),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.

/목포=임영춘기자 lyc@kwangju.co.kr



